



자동차보험산업의 이슈와 전망¹⁾

채원영 연구원

- Scor Re는 서유럽지역 주요국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(UBI)²⁾ 확산, 자동차의 기계적 고장을 보장해 주는 상품(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), 그린카드(Green Card)³⁾, 무인자동차 등의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발표하였음.
- 서유럽 9개 국가⁴⁾의 경우, 동일한 대인배상 원칙⁵⁾을 적용받지만 해당 원칙에는 “배상”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국가별로 관련 제도와 보상비용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개별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함.
 - Socr Re가 서유럽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인배상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지만 사례관리(Case management)⁶⁾와 재활치료 등을 공적 보험에서 보장하는지, 사적보험에서 보장하는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.
 - 또한 보상한도도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가 5백만 유로인 반면 영국, 벨기에, 프랑스는 무제한인 것으로 나타나 그 편차가 매우 큼.
-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당 시장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며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한 광범위한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사업모델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됨.

1) “Motor Insurance & Reinsurance – Current Issues and Future Trends”(Scor Re(2015, 2))를 발췌, 요약함.

2)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(Telematics UBI: Telematics based Usage-Based Insurance)은 자동차에 장착된 이동통신이 가능한 정보단말기(텔레매틱스)를 통해 주행거리, 주행일, 주행장소, 급가속, 급감속, 급회전 등 운전자 성향정보를 취합하여 보험료산출에 반영하는 자동차보험임(“미국의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(UBI) 시장현황”, KIRI Weekly(2015, 4, 6)).

3) 그린카드는 유럽 내 국제 자동차보험으로 47개(2012년 말)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 효력이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되는 시스템임.

4) 스위스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영국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이탈리아.

5) Council of Europe's(75) 7 Resolution.

6)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, 심리치료사, 의사, 재활치료사, 피해자 가족 등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임.

- 2020년 전세계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 원수보험료는 약 500억 유로를 나타낼 전망이다.
 - 또한 텔레매틱스 확산으로 관련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대형 보험회사 이외에도 중소형 보험회사들도 가격산정이 가능해져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 시장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.
 - 향후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대형사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한 종합 서비스(자동차보험 포함) 제공사로, 중소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제공자로 양분될 전망이다.
- 자동차의 기계적 고장을 보장해 주는 상품(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) 등 신상품 도입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시장 경쟁 격화로 이러한 신상품 도입은 활발해질 전망이다.
- 유럽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시 노출될 수 있는 두 가지 위험 중 ‘자동차 사고위험’뿐만 아니라 ‘자동차 고장위험’ 또한 보장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음.
- 유럽은 국가 간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한 국가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린카드(Green Card: 국제자동차보험)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, 아시아 대륙까지 확산될 전망이다.
- 다만, 국가별로 보장 내용과 손해율에 차이가 있어 자동차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.
 - 국제 통합 자동차보험은 향후 북아프리카 지역(Orang Card System), 아시아 지역(Blue Card System)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(Servant System)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나 국가별 자동차보험 관련 데이터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- 무인자동차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큰 폭으로 줄이고 자동차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지만 높은 가격, 대중의 신기술에 대한 불신, 그리고 규제 장벽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무인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보급이 확대된다면 관련 보험 성장세가 전망됨.
- 미국과 영국 내 일부 지역에서 무인자동차 시험주행은 가능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.
 -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제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고 있으나 무인자동차의 경우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서 무인자동차 제작사로 옮겨가며 보험 상품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생산물배상책임으로 변동됨.
 - 이에 따라 배상 절차가 현재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함.
 - 향후 무인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공장 등의 자동화 로봇, 간병 로봇, 최근에 등장한 노인 일상생활 보조 로봇 보급이 확대될 경우 관련 보험의 성장이 기대됨.

(Scor Re 등)